

제19대 노동조합 임기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제19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임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으로 임무를 맡은 이철환·이정엽은 처음 다졌던 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충실하라는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인사 올립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대 노동조합은 동지 여러분께서 주신 과업을 받들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단결과 화합의 힘을 바탕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곧 직원공동체의 품격임을 가슴에 새기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위기와 경영의 위축, 현장의 노동강도 악화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집행위원을 결심하고 집행부를 맡은 동지들과 치열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주요 사업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대의원 동지들과 항상 공감대를 극대화하여 조합원 동지 여러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유일무이한 힘은 단결입니다. 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성심을 다하는 활동이 단결의 밑거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생존터를 붕괴시키거나, 유무형으로 노조를 분열시키거나 탄압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19대 노동조합의 이철환·이정엽이 먼저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결속을 다져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기총회에서 제19대 노동조합의 가야할 길과 방법을 여러분께 여쭙고 확정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023. 8. 1.

제19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철환 · 부위원장 이정엽 올림